세계를 향한 항해를 이끌다

동서유지(주) 김기환 대표

Profile

1975년 동서식품(주) 입사
2002년 동서식품(주) 생산본부장(상무)
2002년 3월 동서유지(주) 대표 이사 취임

동서유지(주)는 지난 8월, 유지 업계 최초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으로부터 HACCP(위해중점관리기준) 업소로 지정 받았다. 동서유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번 HACCP 지정, 그 중심에는 동서유지의 새로운 사령탑 김기환 대표가 있다.

"HACCP 지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품질 관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HACCP 지정은 동서유지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김기환 대표는 75년 동서식품에 입사한 이래 기술 개발과 연구에 몸 담아왔다. 그가 본격적으로 일하던 80년대는 우리나라 식품 업계가 급속히 성장한 시기로 많은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던 시대였다.

"그 당시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설비 등을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와 시도를 하던 시기로 어쩌면 지금 젊은이들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25년간 동서식품에서 일하던 그가 동서유지 대표로 취임한 것은 지난해 3월. 당시 유지 업계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유지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달았고, 경쟁의 수준을 넘어 업계 전반의 수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유지 업계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신제품 개발도 미비했을 뿐더러 업체들은 어려운 실정에 조금은 체념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기환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마냥 체념하고 싶지 않았다. '유지를 단순한 소재 산업으로 치부해 연구하고 도전할게 없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모두가 끝'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외부의 많은 압력들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자립 기반부터 다지고자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경영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와 더불어 동서유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원가절감과 동시에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고심 중이다. 이를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실질 수익이 증가해 그것을 다시 기술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김기환 대표는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동서유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제 동서유지가 경쟁해야 하는 것은 세계입니다. 그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HACCP가 있는 것입니다. HACCP을 통한 품질 관리로 제품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세계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을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계를 향한 동서유지의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 때로는 폭풍우에,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지만 언제나처럼 목적지를 향해 배를 몰고 선원들을 이끌어 풍파를 가르는 선장처럼 오늘도 김기환 대표는 동서유지를 힘차게 이끌고 있다.

〈취재 · 김영주 / 사진 · 박성일〉